

해외의약뉴스

과민성 대장증후군(IBS)과 연관된 비타민D 결핍

개요

비타민D는 치명적인 만성 위장관 기능장애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의 상당수에서 비타민D 결핍이 나타났다고 했다.

키워드

과민성 대장증후군, 비타민D

'BMJ Open Gastroenterology'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환자들 중 상당수에서 비타민D 결핍이 나타났다고 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전 세계 사람들의 9-23%, 미국에선 10-15%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만성 위장관 기능장애(functional disorder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이다. 식이인자(dietary factors)와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왜 그리고 어떻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병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증상은 설사 또는 변비, 팽만감, 긴급 상황(서둘러 화장실 사용 필요 시), 흰색 또는 노란색 점액질 변과 배변 후에도 잔변감으로 인한 불편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당황하게 하며, 치료법은 없다. 개개인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유발요인(triggers)과 효과는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어렵게 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미국에서 매년 240만-350만 번 내원하며, 이 중 12%가 1차 진료 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s)를 방문한다. 경제적 부담 또한 높는데, 이는 의료관련비용, 생산성의 손실과 직장에서의 결근에 관련되며, 이는 연간 약 2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82%가 비타민D 결핍

세필드 대학 분자 소화기 연구 그룹의 Cofe 박사 연구진은 비타민D 수치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의 심각도(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51명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 82%는 비타민D수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비타민D의 상태는 환자의 인지적 삶의 질을 반영하며, 이것은 그들이 삶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영향을 보고

함으로써 측정된다.

Corfe박사는 데이터가 질병에 대한 잠재적인 새로운 통찰력과 중요한 것은 질병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환자 삶의 질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단일 원인과 단일 치료법도 알려져 있지 않다. 임상가와 환자는 현재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Grant연구원은 30년 이상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아왔는데, 5년 전부터 비타민D3 보충제를 고용량 섭취한 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보충제가 질환을 크게 개선시키는 반면, 다른 치료법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비타민D 보충제가 효과적인 다른 질병과 함께 발생하는 꽤 복잡한 질병이라고 언급했다.

비타민D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혈압, 심장 및 신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은 이미 확립되었다.

연구진은 대규모로 더 확실한 임상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며, 비타민D 수치와 비타민D 보충제를 테스트하는 것은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edical New Today는 올해 초,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현재 두 가지 간단한 혈액검사로 진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04361.php>